

# 강의 영상 무단 배포 5천만원 벌금까지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은 강의 녹음·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에브리티임' 게시판에는 강의 녹화본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A 씨는 "업로드 된 녹화 강의를 수강기한 내에 수강하지 못해 녹화 강의를 구해봤다"며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익명 게시판에서 사례금을 제시하고 녹화 강의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시험기간 전공 강의를 복습하려고 했지만, 해당 주차가 지나면 다시 재생할 수 없었다"며 "결국 자신에게 강의 영상을 공유받아 학습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인 학습을 위해 강의를 녹음·녹화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유포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근거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강의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제136조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제46조와 동일성유지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제13조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자인 교수자가 가진 '자신의 강의를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공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강의 녹화본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표하고, 학생을 비롯한 타인에게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만 이용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가 유통되면서 금전거래까지 일어난다면, 교수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저작물의 내용과 취지에 곡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C 씨는 "주위에서도 학생들끼리 강의 자료나 족보를 무단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며 "학교가 단순히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적절하게 처벌하는 행위를 통해 경각심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교수자가 지정한 강의 이용 방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행위는 끝내 공정한 학사평 가를 저해하기에 이른다"며 "학교에서는 교수자의 강연 또한 업연한 저작물이라는 사실에 먼저 집중하여 안내하고, 강의 판매행위는 교수자의 저작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로 이중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저작권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절대 낮지 않다"며 "관련 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숙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했다.

한편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교무처는 비대면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강의자료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다운로드 한 강의자료를 본인 외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위 ▲아이디를 공유하는 등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수업운영 안내 시 교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에 대한 학생의 무단배포 또는 판매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류 관심 학문으로"

K-컬쳐·스토리 콘텐츠  
5년간 50억 지원받아

강린희 기자 linhee0710@khu.ac.kr

문과대학 K-컬쳐·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연구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K 학술 확산 연구소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5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본 사업의 주요 목표는 한국학 교육 콘텐츠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하는 것이다. 50개 교과목과 500개 강의 콘텐츠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학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연구소장인 국어국문학과(국문과) 안승범 교수는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켜 글로벌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주목했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학문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류 문화가 언어와 문학, 문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태동하고, 역동해왔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K-컬쳐·스토리 콘텐츠 연구소가 대학 부설 연구소로 공식 인가를 받은 것은 올해 7월이다. 현재 연구소는 우리학교 국문과 내 한국 문화콘텐츠 전공 박사들과 석박사 학생들이 핵심 연구원으로 구성돼있다. 여기에 국문과 전임 교수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세부 전공 별로 박사 7명이 전임연구원이 되어 연구 사업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그 외에도 해외 4개국 대학교수 가 '공동연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2021-2학기 교수법 특강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 온라인 협업도구 활용법



### 4차 특강

포스트잇처럼 쓰기 쉬운 협업 게시판  
**Linoit, Jamboard**  
프로젝트 결과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Padlet**



### 5차 특강

퀴즈, 설문, 워드클라우드까지  
**Mentimeter**  
많은 도구의 장점을 한 번에  
**Mural**

#### 안내 및 유의 사항

- 대상 : 경희대학교 교원 전체 \* 학생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9월 13일(월) ~ 10월 1일(금)
- 신청 방법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 교수법 특강·워크숍]에서 프로그램 신청
- 수강 방법 : e-campus 접속 및 로그인 → 과목 초대 수락 → [2021] 교수법 특강' 신청하신 차수 선택 및 수강

\* 프로그램 신청 후 초대 메시지 발송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말 신청 시 차주 월요일 오전 9시 이후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 + 만족도 조사 완료] 교육업적점수 차수당 10점 부여 (연 최대 100점)
- 문의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201-3950~5

